

『침묵』 번역본에 나타난 굴절과 종교적 이데올로기*

김진규(金振規)**

목 차

1. 들어가며
2. 『침묵』 번역본의 개괄적 특성
3. 성경 구절과 '데우스(デウス)'의 번역
4. 번역가의 개입과 작품 주제의 굴절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출판사에서 이뤄진 엔도 슈사쿠의 『침묵』 번역에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침묵』은 개신교 출판사인 흥성사와 가톨릭 출판사인 바오로딸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수용되었다. 두 출판사 판본과 달리 마지막 장까지 포함해 원작을 충실히 번역한 중앙일보사의 『오늘의 세계문학 전집 15 침묵』은 존재 자체가 잊히고, 두 종교 출판사에서 번역한 판본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문학으로서의 『침묵』과 종교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바오로딸과 흥성사 번역은 '종교/문학'에서 전자에 방점을 두고, 원작의 체제와 표현을 변용하였다. 원작의 마지막 장을 빼거나, 체제를 바꾸는

* 이 논문은 2021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103140001).

** 가천대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권위가 번역자에게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두 판본은 동일한 종교 배경을 지닌 독자에게 친숙한 어휘로 원작을 번역함으로써, 일반독자들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종교를 가진 독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일반적인 상식과 연결지어 사유할 기회를 빼앗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작가가 작품에서 펼친 신앙에 대한 고민이 홍성사의 번역본에서는 개신교의 기존 신앙에 익숙한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원작 9장의 마지막 단락의 단어를 바꾸고, 내용을 추가하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원작에 나타난 중심인물의 자기 삶과 종교에 대한 의심과 변민은 '시련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한국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내러티브로 굴절된다. 원작의 마지막 장을 누락한 번역본은 완결된 형태의 굳건한 신앙고백으로 끝난다. 이러한 굴절을 통해 원작의 실존적 신앙 갈등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편안하게 작품을 수용하게 한 것이다.

주제어: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침묵』, 굴절, 후원, 종교적 이데올로기.

1. 들어가며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1996)의 『침묵(沈黙)』(1966)은 일본 교과서에 본문이 실릴 정도로 일본 내에서 중요한 작품이며,¹⁾ 13개 나라에서 번역된 세계적인 종교소설이다.²⁾ 『침묵』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사일런스(Silence)」(2016)가 개봉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재조명을 받았다. 선행연구에서 정리했듯이, 『침묵』이 김윤성 번역으로 1973년 7월에 바오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1982년 5월 공문혜 번역으로 홍성사에서, 1992년 오상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³⁾ 1992년 오상출판사의 번역본은 실제 책과 관련 언급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침묵』은 김윤성과 공문혜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읽혀왔다고 볼 수 있다.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침묵』

1) 엔도 슈사쿠, 김승철 옮김, 『침묵의 소리』, 동연, 2016, 77면.

2) 윤일,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침묵』과 『해역』」, 『동북아문화연구』 62, 동아시아문화학회, 2020, 55면.

3) 이평춘, 「명작의 의미—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침묵沈黙』」,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22면.

4) 오상출판사본의 역자는 이용균으로 소개된다. 이 판본에서도 원작의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가 누락되어 있다. 더욱이 책의 마지막 문단이 본고의 4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홍성사본 마

판본은 바오로딸과 홍성사의 것으로, 바오로딸의 경우 1판은 17쇄(1973-1989), 2판은 24쇄(1991-2008) 3판은 31쇄(2009-2021)라는 판매부수를 기록했고,⁵⁾ 홍성사의 경우 초판 47쇄(1982-2002), 개정판 38쇄(2003-2020)의 판매부수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 영화 「사일런스」의 개봉 이후 원작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홍성사본 『침묵』은 기독교를 넘어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1위(2017년 상반기)에 올랐다.⁶⁾ 해당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당시 종교 부문에서 불교 서적이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의 베스트셀러 1위는 개신교계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영화개봉을 전후로 하여 『침묵』 번역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김승철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사일런스(Silence)』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원작의 가장 중요한 결론(「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이 삭제된 “불완전한 형태”의 번역본으로 한국에 소개되었음을 지적했고,⁷⁾ 이후 같은 연재지에서 직접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를 번역해 소개했다.⁸⁾ 이후 김승철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소리(沈黙の声)』(1992) 번역본을 2016년에 출간하면서 책 마지막에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의 번역을 덧붙였다. 김승철은 “지금까지 한글로 번역된 『침묵』에는 이 장이 아예 번역에서 누락”되어, 이 부분을 읽지 않은 한국 독자들은 “‘신의 침묵’의 참된

지막 문단의 오역을 답습하고 있음을 볼 때, 해당 판본을 독자적인 번역본으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홍성사본의 오역을 몇몇 단어만 교체해서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설령 그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제까지의 인생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말씀을, 그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엔도 슈사쿠, 이용균 옮김, 『침묵』, 오상, 1992, 254면.

5) 바오로딸 출판사는 바오로출판사에서 독립하였다. 책에 나온 출판기록은 두 곳의 출판기록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6) 이대용, 「국내 저자 강세, 종교개혁 관련 도서와 ‘스크린셀러’」, 『크리스천투데이』, 2017.7.2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2555> (2022.6.24. 검색). 해당 기사 속 이 순위는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국내 온라인 서점과 전국 기독교 서점들에서 보내온 베스트도서 리스트 순위를 취합해 발표한 '상반기 베스트 50'을 바탕으로 했다.

7) 김승철, 「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1) 흔적과 아픔의 문학(1)」, 『기독교사상』 675, 대한기독교서회, 2015.3., 188면.

8) 김승철, 「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15) 흔적과 아픔의 문학(17)」, 『기독교사상』 691, 대한기독교서회, 2016.7., 130-144면.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⁹⁾ 이후 이 문제제기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계속 다뤄졌지만,¹⁰⁾ 이에 대한 두 출판사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하지만 『침묵』에 관한 선행연구와 언론 등이 존재를 모르는 번역본이 하나 더 있다. 중앙일보사에서 1982년에 출판한 『오늘의 세계문학 15권 침묵·불타버린 지도』가 그것이다. 김효자가 번역한 이 판본에는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도 번역되어 있다. 바로 출판사 첫 번역(1973)의 9년 뒤이자, 홍성사의 첫 판본과 같은 해(1982)에 나온 중앙일보사의 번역본이 지금은 완전히 잊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일차적인 이유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홍성사와 바오로딸이 판과쇄를 거듭해 『침묵』을 출판해왔으나, 김효자의 번역본이 실린 중앙일보사의 ‘오늘의 세계문학 전집’은 1982년 1쇄, 1983년 2쇄, 1984년 보급판을 끝으로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홍성사는 100주년기념교회에서 퇴임한 이재철 목사가 20대 때인 1977년에 세웠으며, 1980년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종합출판사에서 기독교 서적에 주력하는 출판사로 변모하였다.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간행되고 있는 ‘믿음의 글들’ 시리즈에서는 가톨릭 작가로 분류되는 앤도 슈사쿠 작품을 지속적으로 출판했으며, 『침묵』은 홍성사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이다.¹¹⁾ 성바오로딸수도회와 성바오로수도회는 각각 1960년과 1961년 한국에 진출하여, 두 곳이 함께 성바오로출판사를 운영하였으며, 1990년대 초부터 ‘바오로딸’이 독립해 운영되고 있다.¹²⁾ 현재

9) 김승철, 「역자 서문 및 해설」, 『침묵의 소리』, 동연, 2016, 15-16면.

10)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김영태, 「앤도 슈사쿠, 소설 ‘침묵’의 의미를 말하다」, 『노컷뉴스』, 2016.1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896829?sid=103>(2022.6.24. 검색); 신상목, 「[저자와의 만남-김승철 일본 난잔대 교수] ‘침묵’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 『국민일보』, 2017.9.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029254?sid=103> (2022.6.24. 검색).

11) 이대용, 「‘살아 있는 책들’ 만들어 온 ‘그리스도인들’의 출판사—40주년 맞는 홍성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크리스천투데이』, 2014.10.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75291> (2022.6.24. 검색).

12) 「성바오로출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555&cid=46646&categoryId=46646>(2022.6.24. 검색); 「성바오로딸출판사」,

『침묵』은 바오로딸 출판사에서만 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오늘의 세계 문학』 전집은 20세기의 소설만을 대상으로 했고,¹³⁾ 외국 문학 전문가에게 번역을 맡겼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기획이었다. 이는 당시 전집의 신문광고에서도 강조되었다. “일본식 세계문학전집을 그대로 베끼거나 이미 번역된 책을 여러 번 우려먹는 옛날의 세계문학전집”이 아니라, 30여 회의 편집회의를 통해 20세기 명작을 엄선하고, “외국문학 전공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새롭게 번역한 번역 문학의 정상(頂上)”이라는 말에서 출판사의 자부심이 드러난다.¹⁴⁾ 실제로 「침묵」을 번역한 김효자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일본어문학과 졸업 후 당시에는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해당 번역본은 일본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일본 공문서에서 사용된 소오로분(倭文)으로 쓰인 『침묵』의 마지막 장인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를 번역해 실었다.¹⁵⁾

1982년, 같은 해에 번역된 두 번역 중 하나는 존재 자체가 잊히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그 자체로 흥미롭다. 전문 문학 집단과 외국문학 전공자들의 번역본은 잊혔지만, 종교출판사에서 펴낸 번역본은 ‘기독교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의 개봉으로 『침묵』이 재조명되고, 원작의 마지막 장을 누락한 불완전한 번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상황을 보며, 두 가지 물음이 생긴다. 하나는 분명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기관이나 단체는 번역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침묵』이 기독교, 구체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이라는 뚜렷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집단에서 번역되고 유통되었다고 할 때, 그 후원과 이데올로기는 번역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546&cid=46669&categoryId=46669> (2022.6.24. 검색).

13) 당시 세계문학전집이 저작권이 소멸되었고 ‘고전’으로 인식된 작품을 대상으로한 반면, ‘오늘의 세계문학’은 20세기 문학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불행한 전집, 행복한 전집」, 『한겨레 21』 725, 2008.8.27.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52000/2008/08/021152000200808270725002.html> (2022.6.24. 검색).

14) 「오늘의 세계문학 30」, 『동아일보』, 1982.4.5.; 「오늘의 세계문학 30」, 『경향신문』, 1982.6.28.; 「오늘의 세계문학 30」, 『동아일보』, 1984.11.1.

15) 문법적 오류가 많은 흥성사의 번역본에 비해 중앙일보사본은 직역에 충실하고 고유명사와 낯선 단어에 대한 주석도 충실히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종교문학’이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서 하는가이다. 대표적 ‘종교소설’인 침묵의 번역과 유통에서 드러나는 일반 문학계와 종교계의 분리, 그리고 본문에서 다룬 두 종교출판사, 그 중에서도 흥성사본에 나타난 ‘굴절’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와 ‘문학’ 사이의 간극과 소통의 어려움을 고민하게 한다. 본고는 이 두 번째 문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이 글은 위의 첫 번째 물음에 집중한다. 중앙일보사의 번역본을 참조하여 흥성사와 바오로딸 출판사 번역에 나타난 ‘굴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원천 텍스트에 충실한 번역을 강조하는 충실성(fidelity)과 대상 독자의 문화적 관점에서 번역의 이해 가능성을 증시하는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익숙한 대립을 중심으로 번역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작품의 번역에 대한 피상적인 판단에 그치기 쉽다.¹⁶⁾ 원작의 마지막 장을 번역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두 번역본을 ‘충실한 번역’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두 판본에는 원문 문장을 생략하거나, 단어·접속사·숙어 등 문법적 차원의 오역도 다수 나타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어떻게 작품의 마지막 장이 번역되지 않을 수 있었느냐이다. 이는 단순히 번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원작에 대한 출판사와 번역자의 태도와 그들이 갖고있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마지막 챕터의 누락뿐만이 아니라, 작품 속 인물의 이미지와 주제의 굴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이러한 굴절을 살피는데 르페브르의 번역 논의를 참조할 것이다. 르페브르는 한 문화권의 작가와 작품의 이미지를 다른 문화권에 투사한다는 점에서 번역은 명백한 재창작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다.¹⁷⁾ 선행연구에서 정리했듯이, 르페브르는 원저자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는 실제 작가와 텍스트가 아니라 번역을 통해 투사되는(project) 이미지에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16) 장재일·박윤희, 「르페브르의 ‘다시쓰기’와 번역가의 과제—충실성(Fidelity)과 충실성(Loyalty)의 딜레마—」, 『철학·사상·문화』 2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155-156면.

17) André Lefeve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Routledge, 2017, p.7.

강조하면서,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굴절’에 미치는 다섯 가지 제약으로 후원(patronage), 이데올로기(ideology), 시학(poetics), 대중담론(universe of discourse), 원전의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를 든다.¹⁸⁾ 『침묵』의 개신교·가톨릭 출판사 번역본의 특성을 살피는 이 논문은 특히 후원과 이데올로기, 시학에 의한 굴절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르페브르의 논의에서 후원은 주요 정치적 인물/집단, 종교단체, 출판사, 미디어 등을 지칭한다. 후원(자)은 문학 시스템과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다른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려 하며, 문학 시스템 속 전문가들은 문학 시스템과 후원(자)의 이데올로기를 긴밀히 연결시키는 것에 복무한다.¹⁹⁾ 『침묵』은 종교계의 시스템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왔고, 해당 종교를 가진 번역자가 그들이 지닌 신앙을 개입시켜 번역했으며, 이 종교단체와 번역자의 이데올로기가 원작의 변형, ‘등장인물’의 이미지와 주제의 변용에 영향을 미쳤다. 수잔 바사넷이 르페브르의 책 서문에서 썼듯이, 모든 ‘번역/다시쓰기’는 특정한 이념을 반영하여 그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문학을 조작한다. 그러한 조작은 문학과 사회의 혁신과 변형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혁신을 억제하고 왜곡할 수도 있다.²⁰⁾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의 『침묵』 번역은 원작이 지닌 타자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종교/문학’의 변형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종교관을 강화하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번역본에 나타난 구체적 굴절 양상을 통해 이점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침묵』 번역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번역본의 초판이 아니라 시판되고 있는 가장 최근 판본(홍성사-개정판(2003년), 바오로딸-3판(2009))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¹⁾

18) 르페브르의 ‘다시 쓰기’ 개념과 ‘굴절’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할 것. 장재일·박윤희, 앞의 글, 157-160면; 김가희·박윤희, 「르페브르 문학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문학 번역 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17-221면.

19) André Lefevere, op. cit., p.12.

20) Susan Bassnett, “General editors’ prefac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Routledge, 2017.

21) 이 글에서 분석하는 텍스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遠藤周作, 『沈黙』, 新潮文庫, 1981; 엔도

2. 『침묵』 번역본의 개괄적 특성

앞서 정리했듯이, 『침묵』은 ‘바오로/바오로딸’과 홍성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국에 받아들여졌다. ‘바오로/바오로딸’ 출판사의 번역은 시인 김윤성(가브리엘)이, 홍성사는 작가 공문혜가 맡았다. 두 『침묵』 번역본의 특성은 1982년 중앙일보사의 ‘오늘의 세계문학’ 전집의 번역과 비교해볼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거칠게 말하면 외국문학 전공자의 전문 번역을 표방한 중앙일보사본은 원작의 표기를 가급적 그대로 옮기고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점에서 원작에 충실한 번역이다. 반면, 바오로딸과 홍성사 번역본은 한국어와 문화, 특히 국내 종교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치중한 번역이다. 두 판본 중에서, 바오로딸 번역본은 원작의 포르투갈어와 일본어 단어를 한국어 표현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홍성사본은 가톨릭 종교, 일본의 제도와 문화와 관련된 단어의 경우 원어를 병기하고 원어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어를 택했다. 하지만 홍성사본은 원작에 있는 문장의 생략, 단어의 오인과 문법적 오류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굴절이 세 판본 중 가장 뚜렷하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보겠다.

먼저 기독교 용어·일본 및 포르투갈 용어 등 어휘 차원에서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역에 충실한 중앙일보사본에 비해 홍성사와 바오로딸 번역본은 한국어 독자에게 친숙한 방향으로 어휘를 번역했다. 먼저 텍스트의 핵심 개념인 ‘배교’에 대해 살펴보자. 원문에서는 신앙을 버리는 행위를 명사로는 ‘기교(棄敎)’로, 동사로는 ‘転ぶ(코로부)’로 나눠 썼다. 중앙일보사본에서는 명사의 경우 ‘기교(棄敎)’를 그대로 사용했고, 동사의 경우 “바꿨다[바꿨다함은 기독교도의 개종(改宗)을 뜻하는 말]”처럼 역주를 함께 달아 전달하거나 ‘배교하다’로 번역했다. 나머지 두 판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슈사쿠, 김효자 옮김, 『침묵·불타버린 지도』, 중앙일보사, 1982; 엔도 슈사쿠, 김윤성 옮김, 『침묵』, 바오로딸, 2009; 엔도 슈사쿠, 공문혜 옮김, 『침묵』, 홍성사, 2003. 이후 본문에서 각 판본을 인용할 때, 원문은 『沈黙』, 번역본은 출판사의 이름 ‘중앙일보사본’·‘바오로딸본’·‘홍성사본’으로 쓰고 인용 페이지를 쓰도록 하겠다.

단어인 ‘기교’ 대신에 ‘배교/배교하다’로 번역하였다.²²⁾ 그 외 기독교 관련 용어들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1〉 종교 관련 번역어의 사례

원작	중앙일보사	흥성사	바오로딸
「ガラサ」(聖籠) とかいう言葉と 「サンタ・マリア」 (聖母)という発音 29면.	〈가라사〉(성은)라는 말과 〈산타마리아〉(성모)라는 발음 27면	‘가라사’(聖籠)라든가 ‘산타마리아’(聖母)라는 발음 39면	‘은총’, ‘성모 마리아’ 라는 말 44면
祕密の組織 35면	비밀 코르데이아(조직) 32면	비밀조직 46면	비밀조직 51면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139면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114면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68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90면
殉教 208면	마루찌루노(순교) 170면	순교 254면	순교 282면

위의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중앙일보사본은 원작의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고, 바오로딸은 일반 한국어 독자에게 낯선 한자나 라틴어 등을 과감히 생략했다. 라틴어 등 낯선 단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는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맥락의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だからただ古い聖画を一軒の家の中でひそかにみせたあと祈りをするだけです。(彼等はこれらの祈りをラテン語のまま「バーテル・ノステル」だの「アベ・マリア」だのと申しております)そして祈りをとнаえる時は、その合間になにげない雑談をまじえます。『沈黙』, 40면.

22) 흥성사본에서는 ‘棄教/転ぶ’의 구분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탓인지, 배교했다는 맥락에서 사용된 ‘転ぶ’를 ‘쓰러졌다’로 번역하여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11면).

그래서 옛 성화를 어떤 집 안에서 몰래 보여준 뒤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라틴어 그대로 〈빠데르 노스페르〉니, 〈아베마리아〉니 하고 말합니다— 중앙일보사본, 36면.

그래서 옛 성화(聖畵)를 어느 한 집에 간직해 두었다가 몰래 돌려본 뒤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그들은 이 기도를 라틴어 그대로 ‘파이텔노스텔’이라거나 ‘아베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성사본, 52면.

그래서 다만 어느 집에서 옛날 성화를 비밀히 돌리며 기도를 올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바치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이었고.) 바오로딸본, 57면.

로드리고 신부와 가르페 신부는 일본에 잠입한 후 가톨릭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도모기 마을 사람들을 만난다. 시마바라의 난 이후의 엄혹한 종교 탄압 아래에서 일본 신자들은 은밀히 신앙을 유지했다. 위의 인용문은 로드리고가 도모기 마을 사람들이 사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라틴어를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감동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도 바오로딸본은 라틴어를 전부 한국어의 뜻으로 새김으로써 이 장면이 환기하는 타자성을 제거한다. 예상 독자에게 친숙한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투명성의 강조가 원작의 중요한 주제 전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틴어와 포르투갈어라는 낯선 언어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본 농민들에 대한 묘사는 서양종교가 일본이라는 낯선 풍토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책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이러한 타자성을 제거한 친숙한 번역은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관직, 제도, 풍습 그리고 포르투갈어 및 도량형 등도 위의 종교 용어 번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관직명인 ‘宗門奉行’은 중앙일보사의 경우 ‘종문 수령[宗門奉行:江戶幕府가 기독교 탄압의 수단으로 교도들을 불교로 개종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1640년 이 책임을 지쿠고의 수령 이노우에 마사시게에게 맡겼다]’처럼 한국어 번역에 원어와 그 뜻을 역주로 함께 달았다. 반면 홍성사는 ‘슈우몽(宗門) 부교오’(19면), 바오로딸은 ‘슈몬宗門

수령'으로 번역했다. 원작에 나온 포르투갈어 '엔텐지멘'은 중앙일보사의 경우 '엔텐지멘뚜[포르투갈어로 지혜 혹은 분별의 뜻. ententimento]'(95면), 홍성사와 바오로딸은 각각 '두뇌'(140면), '머리'(158면)로 번역하였다. 원작에 사용된 포르투갈 도량형 단위인 '레그', '쿠아르'는 중앙일보사에서는 '레구아'·'콰트르'를 그대로 썼고, 홍성사는 미터로 환산하여 번역했고, 바오로딸은 마일과 야드로 변환하여 번역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중앙일보사는 원작의 표기를 최대한 살리고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나머지 두 출판사, 특히 그중에서도 바오로딸은 한국독자에게 친숙한 단어로 번역하였다. 바오로딸본에서 도량형을 미터가 아닌 마일과 야드를 쓴 것은 낯선 포르투갈 도량형의 번역과 수치 환산을 고민하던 중 영어번역본을 참조하여 비교적 덜 낯선 영미식 도량형을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어휘 차원에서 나타난 두 번역본의 특성은 원작 체제의 굴절이라는 보다 중요한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원작은 <まえがき(머리말), I セバスチャン・ロドリゴの書簡(세바스티안 로드리고의 편지), II 세바스티안・로드리고의書簡, III 세바스티안・로드리고의書簡, IV 세바스티안・로드리고의書簡, V, VI, VII, VIII, IX, 切支丹屋敷役人日記(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 순서로 되어 있다. 김효자의 번역본은 이 체제와 동일하다.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과 달리, 소오로분(候文)으로 인명과 지역명, 관직명 등이 나열되고 있는 '기독교도 주거 관리의 일기(중앙일보사 본)'는 다수의 인물과 관직명, 그리고 연호가 일본어로만 적혀 있다. 고유명사의 발음과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일종의 타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타협은 완벽히 번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번역해야 한다는 원작에 대한 역설적 존중을 보여준다. 반면 나머지 두 판본은 이 마지막 장을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체제면에서 홍성사본은 마지막 장을 제외한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바오로딸본의 목차는 '책머리에-세바스티안 로드리고의 편지-옥중의 로드리고 신부-네덜란드 상인 우나센의 일기에서-맺음말'로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장을 묶고 분절했다. 즉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1-4장을 '세바스티안 로드리고의

편지'로 묶고, 배교하기까지의 내용(5-9장)을 '옥중의 로드리고 신부'라는 새로 지은 제목 아래에 배치했고, 원작 9장에 포함된 '네덜란드 상인 우나센의 일기에서'와 그 뒤에 나오는 기치지로와 '로드리고/오카다 산에몬'의 이야기를 별도로 두 개의 장으로 분리하였다. 원작의 마지막 장을 빼고서 번역하거나 장 구성을 변경한 후 새로운 제목을 다는 행위는 원작에 대한 존중과 거리가 멀다. 체제변경과 제목의 부기는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마지막 챕터의 누락은 그것이 없어도 번역본은 그 자체로 완결된 작품이라는 번역가-출판사의 판단을 보여준다.

홍성사와 바오로딸 번역본에 나타난 원문의 삭제와 체제변경의 '자유'는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관습을 잘 보여준다. 르페브르는 피츠제럴드의 『루바이아트』(1859) 번역을 예로 들어 이데올로기적 시학이 굴절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피츠제럴드가 번역한 오마르 하이얌의 『루바이아트』는 그 자체로 영문학사에서 언급되고 『노튼영문학선집』에 실림으로써 영문학의 정전에 올랐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번역은 적극적 전유의 대표적 사례이자 '성공적 번역'으로 평가받는다.²³⁾ 투명성에 기반한 '성공적 번역' 평가에 대해 충실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의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르페브르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적극적 '굴절'이 영미문학과 이슬람문학의 뚜렷한 위계 아래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 문학의 중요한 정전인 까시다(qasidah)가 영미문학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대신 변방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받는 『루바이아트』가 이슬람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과 피츠제럴드가 번역 과정에서 느낀 '자유가 주는 즐거움'은 '진정한 문학인 유럽-미국문학'과 '변방의 이슬람 문학' 사이의 뚜렷한 위계 아래에서 가능했다. 르페브르는 피츠제럴드가 유럽문학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로마 문학'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굴절과 그에 기반한 타자의 이미지가 목표언어의 이데올로기와 시학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⁴⁾

23) 봉준수, 「번역과 정체성: 누가, 무엇을, 왜?」, 『인문언어』 18, 국제언어인문학회, 2016, 41-43면.

24) André Lefevere, op. cit., pp. 55-57.

이러한 르페브르의 논의를 일본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 그리고 한국문학 내의 이데올로기와 시학의 문제로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중앙일보사본은 원작을 충실히 번역한 반면, 바오로딸과 홍성사본은 번역되는 내용과 체제 면에서 적극적인 ‘자유’를 누렸기 때문이다. 두 종교계 출판사의 번역은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이라는 대립층과 종교와 문학이라는 대립층이란 이중의 굴절을 보여준다. 『침묵』이 ‘오늘날의 세계문학’의 하나로 번역될 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면, ‘믿음의 글들’의 시리즈로 번역될 때는 “평생, 혹은 가장 귀한 순간에 진리를 위하여 죽거나 죽기를 결단하는 참 믿음의 이들의, 참 믿는 이들을 위한, 참 믿음의 글들”²⁵⁾, 다시 말해 ‘믿음’을 독려하기 위한 신앙서적으로 위치지어진다. 전자의 경우 문학작품의 체제와 주제를 존중하며 번역한다면, 후자의 경우 번역가와 예상 독자들이 공유하는 신앙적 지침이 텍스트를 평가하고 굴절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앞서 살핀 두 종교출판사의 마지막 장 생략은 이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원작에 나타난 낯선 일본어와 포르투갈어, 일본의 제도와 고유명사 등의 정확한 전달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 속 신앙의 양태이다. 천주교식 용어가 낯설고 그것을 대체할 용어가 없는 개신교 측에서는 원작에 나타난 일본어로 표현된 천주교 용어를 원어와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으나, 천주교 측에서는 굳이 라틴어나 일본어로 표기된 용어로 천주교식 용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한국의 천주교 용어를 바로 갖고 오면 되는 것이다.

3. 성경 구절과 ‘데우스(デウス)’의 번역

앞에서 홍성사와 바오로딸의 『침묵』 번역의 특징 중 하나가 동일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독자에게 친화적인 굴절이 일어났다는 사실임을 살폈다.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구절의 인용, ‘데우스(デウス)’ 번역 등을 바탕으로 성경의 권위와 종교 관습이 번역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신부의 선교와 배교 문제를 다룬 소설이니만

25) 홍성사의 ‘믿음의 글들’ 시리즈에 대한 설명으로, 『침묵』은 믿음의 글들 아홉번째 시리즈이다.

큼 텍스트에는 성경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중앙일보사의 경우 원작의 일본어 성경구절을 직역한 반면, 흥성사와 바오로딸은 각각 개역한글판 성경과 가톨릭 성경의 구절을 가져왔다. 종교출판사에서 번역하는 책이니만큼 당시 가장 일반적인 성경의 판본을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두 종교출판사는 단순히 성경의 구절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구절을 추가하거나 생략한다.

マリアの図の下にオランダ文で「めで^{せいりょう}聖寵^{せいりょう}みちみてる者よ、主^{しゅ}爾^にと共に在^{いま}す。爾^には女^{うち}の中^{うち}にて祝^{うち}せられ」(루카^{루카}伝第一章二十八節) とあるのを示し、『沈黙』, 230면.

마리아의 그림 밑에 네덜란드 글자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눅 1:28)”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이며 〈흥성사〉, 281면

마리아 그림 밑에 네덜란드 글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 28)라고 써어 있는 것을 보이며, 〈바오로딸〉, 314면.

원작에는 「누가복음」 제1장28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爾^에는女^중の中^에にて祝^하せられ(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는 같은 장의 42절 내용의 일부이다. 28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알리는 내용이고, 42절은 마리아의 친척이자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마리아에 대한 천사와 엘리사벳의 축복이 묶인 원작의 구절을 두 번역본은 ‘「누가복음」 제1장 28절’이라는 표지에 맞춰서 끊어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28절이면 28절의 내용만 와야지 그 외의 내용이 덧붙여진채로 ‘누가복음 1장 28절’로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⁶⁾ 번역본의 성경 인용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등장한다. 이 사례처럼 본래 성경의 절 구성에 따라 원문 속 성경구절이 생략되기도 하고,

26) 이와 함께 흥성사본에서 누가복음의 약호인 ‘눅’을 사용한 것은 일반 독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선택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 독자는 ‘눅’을 보고 ‘누가복음’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문에서 성경구절이 중간에 잘렸으면 번역본에서는 본래 성경에 따라 나머지 내용을 채워 넣기도 한다. 성경 인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은 가톨릭 성경에는 있으나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지혜서」 10장 6절의 번역이다. 바오로딸은 가톨릭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오나, 홍성사는 원문을 직역해버린다. 개신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한국 가톨릭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 각 진영에서 성경이 갖는 절대적 권위이다. 두 판본은 각기 당시에 공인된 판본의 성경구절을 갖고왔고, 원작의 성경 구절 편집보다 본래 성경의 구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번역했다.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에게 친숙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일반 독자도 대상으로 하며, 기독교 용어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자기 신앙과 세계를 연결지어 사유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문학작품이다. 특정 종교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고집할 경우, 소통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홍성사의 번역본에서 두드러진다. 이 문제를 ‘티베리아 호수’와 ‘데우스’ 번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원작에서 로드리고가 자신이 사랑한 예수의 얼굴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사도들에게 ‘어린 양을 먹이랴’라고 말할 때의 씩씩하고 힘찬 얼굴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자. 티베리아(Tiberias)는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도시로 그 이름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서 왔다. 갈릴리 호수를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등으로 불렀고, 성경에서도 갈릴리와 티베리아, 호수와 바다는 서로 교차하여 연결된다. 해당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절의 경우 개신교의 개역한글은 ‘디베랴 바다’로, 개역한글을 수정한 개역개정에서는 ‘디베랴 호수’로 번역하고, 천주교 성경은 ‘티베리아스 호숫가’로 번역하였다.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하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의 호숫가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도들에게 ‘양/신도’를 먹이랴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은 제국의 권력과 그것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갈등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일본 막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일본 신도들을 ‘떡이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는 신부들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원작의 ‘チベリアアの湖^{うみべ}辺(27면)’는 ‘티베리아 호숫가(湖辺)/ 해변(うみべ)’의 뜻을 동시에 전달한다. 해당 단어는 중앙일보사와 바오로딸 번역본에서 ‘티베리아의 호숫가(25면, 41면)’로 번역된다. 이와 달리 홍성사에서 ‘디베라 해안’으로 번역된다(36면). 이는 개역한글에서 ‘디베라 바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도 호수이고, 원작에서도 한자로 호숫가(湖辺)라고 표기했고, 대한성서공회가 1998년부터 펴내고 있는 개역개정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도 ‘디베라 호수’로 바뀌어 표기되었다. 물론 일본어 원작이 호숫가와 해변의 뜻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지 않고 하나를 택한다면, 위에서 살핀 맥락상 호숫가가 더 적절하다. 홍성사본이 ‘디베라 해변’으로 번역한 것은 성경이 갖는 권위의 무거움과 종교관습의 관성을 시사해준다. 당시 개신교의 가장 일반적인 판본인 개역한글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고, 개역개정이 개역한글을 대체해도 ‘디베라 바다’라는 표현은 홍성사 번역본에서 계속 살아남은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티베리아 호숫가’와 ‘디베라 해변’의 차이가 종교(개신교)와 일반 사회 사이의 막힌 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일반독자는 ‘디베라’라는 말에서 ‘티베리아’라는 지역명을 떠올리지 못하며, ‘해변’이라는 말은 내륙지방인 티베리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개신교도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한데, 성경에 나온 지역명과 인명이 오늘날의 그것과 동떨어진 탓에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을 구체적인 역사와 연결시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디베라’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연결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그 지역이 오늘날의 티베리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홍성사본의 ‘디베라 해안’은 개신교도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역사적 현실성이 지워진 공간이 되어버린다.

홍성사의 데우스(デウス) 번역 사례는 종교적 관습이 강화될 때 일어나는 소통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오로딸도 데우스(デウス)를 ‘하느

님'으로 주로 번역하지만 아래 예시처럼 꼭 데우스를 써야하는 곳에서는 데우스를 사용하는 반면, 홍성사는 아래 장면에서도 '하나님'으로 번역한다. '데우스(Deus)'라는 라틴어는 일본인에게 그 자체로 낯선 발음이자, 그 내포 역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다. 일본 신자들이 받아들인 '데우스'가 가톨릭의 '데우스'와 동일한 것이냐, 동일하지 않다면 선교란 어떤 의미가 있는냐는 이 작품이 던지는 중요한 물음이다. 홍성사의 번역에서 데우스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증대한 오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だが聖ザビエル師が教えられた㉠デウスという言葉も日本人たちは勝手に大日^{だいにとち}とよぶ信仰に変えていたのだ。陽を拜む日本人には㉡デウスと大日とはほとんど似た発音だった。
(…)

㉠デウスと大日と混同した日本人はその時から我々の㉢神を彼等流に屈折させ変化させ、そして別のものを作あげはじめたのだ。言葉の混乱がなくなったあとも、この屈折と変化とはひそかに続けられ、お前がさっき口に出した布教がもっと華やかな時でさえも日本人たちは基督教の㉢神ではなく、彼等が屈折させた㉣ものを信じていたのだ」『沈黙』, 190-191면.

하지만 성 자비에르 신부가 가르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일본인들이 멋대로 오오히(大日)라고 부르는 신앙으로 변해 있었어. 태양을 숭배하는 일본인에게 ㉠'데우스'와 오오히는 거의 비슷한 발음이었던 거야.
(…)

㉠'데우스'와 오오히를 혼동한 일본인은 그때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 식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어. 언어의 혼란이 없어진 뒤에도 이 굴절되고 변화된 신앙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거야. 자네가 아까 말한 포교가 가장 화려했던 시대에 가서도, 일본인들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굴절시키고 변화시킨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거지. 홍성사본, 232면.

위 인용문은 배교한 페레이라가 그의 후배 사제인 로드리고에게 일본이 받아들인 천주교는 그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천주교가 굴절된 것이라고 말하며 포교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여기서 페레이라는 일본인들이 '데우스(Deus)'를 발음이 유사한 '다이니찌(大日)^{だいにとち}'와 혼동했고, 따라

서 일본 가톨릭 신도들이 믿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홍성사본에서 ‘다이니치(大日)’를 ‘오오히(大日)’로 옮긴 것은 변명이 안 되는 오역이다. 여기에서는 이 오역을 비판하기보다는 이 오역의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강박에 집중해보자. 이 장면에서 페레이라는 보편신으로서의 개념을 부정하고 있으며, 원문에서도 신에 해당하는 단어가 ‘데우스’, ‘神(카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홍성사는 ‘데우스’ 중 일부는 ‘데우스’로(㉠, ㉡), 일부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번역한다. 또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神(㉣, ㉤)과 부정적 뉘앙스가 담긴 ‘그들이 굴절시킨 것(㉥もの)’도 모두 ‘하나님’으로 옮긴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유일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가톨릭의 ‘데우스’뿐만 아니라 ‘신(神)’이나 ‘것(もの)’까지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신과 관련된 표현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야한다는 관념은 ‘하나님(㉢)/데우스(㉠, ㉡)’와 ‘오오히’의 비슷한 발음이라는 오역을 낳았고, 작품에서 중요한 이질적인 종교의 수용과 굴절이라는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4. 번역가의 개입과 작품 주제의 굴절

2장에서는 ‘종교’문화적 속성이 종교‘문학’ 위에 선행할 때, 신앙 메시지 전달을 위해 원작의 체제가 변할 수 있음을 살폈고, 3장에서는 종교 관습과 문화를 바탕으로 특정 독자에게 익숙한 번역이 이뤄질 때 일반 독자와 종교를 지닌 독자, 그리고 신앙적 이해와 상식적인 세계 이해 사이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사실을 살폈다. 4장에서는 홍성사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 신앙관에 의해 로드리고의 이미지와 작품의 주제가 굴절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바오로딸 번역 역시 단어 선택과 성경구절 인용에서 가톨릭 신앙과 문화에 의한 굴절을 보인다. 홍성사 번역은 단순히 단어의 선택이나 구문의 변용 차원이 아니라, 원작과 다른 단어와 내용을 삽입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변용을 보이며, 그러한 변용과 원작의 주제의식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르페브르는 ‘안나 프랑크의 일기’가 편집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까지의 과정에 작동한 이데올로기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혔다. 작가가 되기 원했던 안네 프랑크는 작가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일기의 ‘다시쓰기’를 시도했다. 이후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거기에 담긴 내용에 대한 가족들의 검열, 네덜란드와 독일 등 각 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굴절되고, 그에 따라 안네의 이미지 역시 바뀌게 된다. 즉 ‘전쟁에 희생당한 순전한 14세 소녀’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승인된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 안네의 성에 대한 고민과 묘사, 신체 기능에 대한 언급, 여성의 낮은 지위에 대한 비판은 생략되거나 완화된다. 이에 더해 독일 번역에서는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라 독일의 전쟁범죄와 파시즘 비판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약화되고, 안네 프랑크를 잘 교육받은 젊은 소녀의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안네의 언어, 행동, 사고방식 등이 바뀌어 번역된다.²⁷⁾

이 논의는 『침묵』의 번역 텍스트에서 발생한 굴절에 작용한 종교적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번역 텍스트의 수용을 결정짓는 권력의 특성과 작동방식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침묵』의 9장 마지막에서 로드리고가 들은 신의 음성, ‘나는 ‘뵤아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뵤아도 된다고 말했다’를 차용하자면, 원작의 마지막 장을 빼고 작품 속 개념과 표현을 예상독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고 신앙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작품의 주제를 변형시켜도 된다고 말하는 권력의 특성이다. 2장과 3장에서 예상 독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작을 ‘배교해도 된다’는 권력의 음성을 읽었다면, 4장에서는 예상 독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원작을 ‘배교해도 된다’는 권력의 음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흥성사본은 박해받는 이들에 대한 동정과 탄압자에 대한 거부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독교도들이 고문당하는 곳인 ‘운젠의 산(雲仙のお山)’을 ‘운젠 지옥’으로 번역하거나(129면),²⁸⁾ 기독교도들이 당하는 폭력과

27) André Lefevere, op. cit, pp. 45-54.

28) 중앙일보사본과 바오로딸본은 각각 ‘운젠의 산(88면)’과 ‘운젠이란 산(146면)’으로 번역하였다.

고문의 장면을 묘사할 때 원작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그 상황을 더욱 핏진하게 전달한다.

또한, 로드리고의 이미지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원작에 나타난 신에 대한 원망과 회의, 페레이라에 대한 감정적 토로 등이 약화된다. 신자들의 순교에도 침묵하는 신에 대한 원망이 담긴 내용에서 로드리고는 신과 예수를 ‘그(彼)’, ‘당신(あなた)’, ‘그 사람(あの人)’ 등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홍성사본에서는 ‘하나님’, ‘그분’ 등의 존칭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그가 없다고 한다면(彼がいなかったならば)’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106면)”으로, ‘이 졸렬하고 잔인한 일과는 마치 관계가 없다는 듯이 당신은 외면하고 있다(愚劣でむごたらしいこととまるで無関係のように、あなたはそっぽを向く)’는 “이런 어리석고 참혹한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분은 외면하고 있다(186면).”로 바뀐다.²⁹⁾ 또한, 자신에게 배교를 설득하러 온 ‘사와노/페레이라’가 신도들에게 향해지는 고문을 멈추기 위해 배교하라고, 그리스도도 배교했을 것이라고 할 때, 로드리고가 페레이라에게 하는 말인 “이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가시오. 멀리 가버리시오(これ以上、わたしを苦しめないでくれ。去ってくれ。遠くに行ってくれ)”를 “이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시오. 물러가 주시오.³⁰⁾ 멀리 가 주세요(265면).”로 번역한다. 이제까지 진심으로 존경해온 스승 페레이라가 배교를 설득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로드리고는 이전이라면 사용할 수 없었을 낮춤말(くれ)를 사용한다.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낮춤말은 홍성사 판에서는 존댓말로 바뀐다. 이로 인해 고난 앞에서 고통받는 섬세하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사제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박해받는 이에 대한 공감은 이처럼 단어와 말투 등의 변용에 영향을 미쳤다. 신에 대한 격정적인 회의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강한 어조는 순화되고 약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홍성사 판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서 절정을 이룬다.

私がその愛を知るためには、㉠今日までのすべてが必要だったのだ。私はこの国で

29) 홍성사본과 비교하기 위한 원문의 번역은 ‘중앙일보사 판본’을 참조하였다.

30) ‘주세요’는 번역본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임.

今でも最後の切支丹司祭なのだ。そしてあの人は沈黙し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たとえあの人は沈黙していたとしても、㉠私の今日までの人生があの人について語っていた。『沈黙』, 241면.

나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 있어 아직도 최후의 기독교 사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해도 ㉡'지금까지 걸여온 나의 인생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중앙일보사본, 197면.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최후의 가톨릭 신부이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흥성사본, 294-295면.

위의 인용문은 9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흥성사본의 경우 마지막 장을 생략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절망과 회의 끝에 다시 믿음을 확인하는 이 내용은 책 전체의 결론이 된다. 중앙일보사본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고, 흥성사본은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한 변용을 보인다. 첫째는 신의 사랑을 알기까지 '이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문장에 내용을 추가해 다른 내용으로 바꿨다(㉡). 이 두 가지 변용은 '시련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익숙한 내러티브 아래에서 서로 긴밀히 작동한다. 시련은 신도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자 신앙을 단련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시련의 시간에 나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비문으로 뜻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원문에서처럼 '말하고 있었다'의 주어가 '나의 인생'이라고 할 때, 그 뜻은 그 시련 속에서 '나의 인생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번역자가 추가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는 로드리고가 지닌 고민 및 깨달음과 배치된다는 사실이다. 그

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과 자신의 신이 다름을 깨달았고(『沈黙』, 223면), 자신은 일본 막부의 권력과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의 풍토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배운 가톨릭교의 가르침과 싸워왔다고 말한다(『沈黙』, 232-233면). 로드리고의 신앙은 자신이 배우고 믿어왔던 것과의 끊임없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실존적이다. 엔도 슈사쿠가 “베르나노스 표현을 빌려 신앙이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라고 말한 것과, 『침묵』은 “의심과 변민이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본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언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¹⁾ 하지만 흥성사의 번역은 이 실존적 고민을 ‘순종과 배움’으로 치환한다. 매 순간의 실존적 고민(‘이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시련’으로 바꾸고, 자신이 배우고 따랐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싸웠던 로드리고로 하여금 자신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살아왔다는, 원작에는 없는 내용을 만들어 고백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원작의 마지막 장인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의 생략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작가가 직접 설명한 것처럼, ‘로드리고/오카다 산에몬’과 기치지로는 배교 이후에도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의심한 막부는 ‘로드리고/오카다 산에몬’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자신의 배교를 명시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³²⁾ 로드리고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반복해서 배교를 선언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다시 흥성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순종과 배움’에서 신앙은 즉자적 양태를 띠고, ‘싸움’에서 신앙은 실존적 양태를 띤다. 로드리고를 다시 ‘순종과 배움’에 머무는 신앙인으로 변용시킨 흥성사의 번역은 그 번역 과정에 작동한 한국 개신교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실존적 고민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한 실존의 순간 대신 ‘시련(㉠)’을 거쳐 ‘신과의 영원한 동행과 굳건한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는 흥성사의 결말은

31) 강동석, 「의심과 변민은 신앙의 본질, 회의 자체가 신앙 아닐까」 [인터뷰] 난잔종교문화연구소 김승철 교수②, 『뉴스앤조이』, 2019.3.4.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29> (2022.6.24. 검색).

32) 엔도 슈사쿠, 김승철 옮김, 『〈침묵〉의 소리』, 동연, 2016, 71면, 235-236면 각주 235.


그 자체로 완결된 느낌을 주고, 굳건한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즉자적 양태는 신 혹은 죽음에서만 가능하다.

5. 나오며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글의 목적은 종교 출판사에서 이뤄진 문학작품 번역에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구체적 양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바로로팔과 홍성사 번역은 ‘종교/문학’에서 전자에 방점을 두고, 원작의 체제와 표현을 변용하였다. 원작의 마지막 장을 빼버리거나, 체제를 바꾸는 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권위가 번역자들에게 크게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동일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독자를 염두에 둔 어휘의 선택은 일반 독자들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종교를 가진 독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일반적인 상식과 연결지어 사유할 기회를 빼앗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엔도 슈사쿠라는 이국의 작가가 에도 시대의 일본이라는 낯선 배경 아래에서 펼친 신앙에 대한 갈등이 개신교의 기존 신앙에 익숙한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원작의 마지막 장 내용을 참조해 ‘로드리고 /오카다 산에몬’의 죽음까지 담고있는 영화 <사일런스>를 보고서, 홍성사본의 마지막 단락에 나온 신앙고백과 막부의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성상을 감별하고, 순교자와 비순교자를 감별한 ‘로드리고/오카다 산에몬’의 삶이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물음’을 제기한 글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굴절이 야기한 흥미로운 반응일 것이다.³³⁾

번역에서 일어난 굴절을 통해 결국 던지고자 했던 물음은 ‘종교/문학’의 정의와 당위였다. 물론 하나의 사례를 다룬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큰 주제이다. 다만 종교와 문학의 중요한 기능이 타자성과의 대면을 통해 익숙한 자기

33) 김진영,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사일런스>, 이 영화가 불편하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7. 2.22. <https://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7656/20170222/%EA%B9%80%EC%A7%80%EC%B2%A0-%EB%AA%A9%EC%82%AC-%EC%82%AC%EC%9D%BC%EB%9F%B0%EC%8A%A4-%EC%9D%B4-%EC%98%81%ED%99%94%EA%B0%80-%EB%B6%88%ED%8E%B8%ED%95%98%EB%8B%A4.htm> (2022.6.24. 검색).

세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인식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은 그 자체로 초월적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독자에게는 삶과 신앙의 문제를 낯설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는 ‘종교문학’이다. 서론에서 인용한 수잔 바스넷의 언급에서처럼 번역에서 굴절은 필연적이다. 단, 그 굴절은 문학과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고, 혁신을 억제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 ‘한국 기독교라는 늪’에 번역을 통해 심겨진 『침묵』은 어디에 가까운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경향신문』

遠藤周作, 『沈黙』, 新潮文庫, 1981.

엔도 슈사쿠, 김효자 옮김, 『침묵·볼터버린 지도』, 중앙일보사, 1982.

_____, 이용균 옮김, 『침묵』, 오상, 1992.

_____, 공문혜 옮김, 『침묵』, 흥성사, 2003.

_____, 김윤성 옮김, 『침묵』, 바오로딸, 2009.

_____, 김승철 옮김, 『침묵의 소리』, 동연, 2016.

김가희·박윤희, 「르페브르 문학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 -문학 번역 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15-236면.

김승철, 「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1) 흔적과 아픔의 문학(1)」, 『기독교사상』 675, 대한기독교서회, 2015.3., 188-198면.

_____, 「엔도 슈사쿠와 건너는 깊은 강(15) 흔적과 아픔의 문학(17)」, 『기독교사상』 691, 대한기독교서회, 2016.7., 130-144면.

봉준수, 「번역과 정체성: 누가, 무엇을, 왜?」, 『인문언어』 18, 국제언어인문학회, 2016, 35-54면.

윤 일, 「엔도 슈사쿠(遠藤 周作)의 『침묵』과 '해역」, 『동북아문화연구』 62, 동아시아문화학회, 2020, 57-70면.

이평춘, 「명작의 의미—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침묵沈黙』」,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21-327면.

장재일·박윤희, 「르페브르의 '다시쓰기'와 번역가의 과제—충실성(Fidelity)과 충실성(Loyalty)의 딜레마—」, 『철학·사상·문화』 25,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150-174면.

Lefevere, Andre,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Routledge, 2017.

이대웅, 「국내 저자 강제, 종교개혁 관련 도서와 '스크린셀러」, 『크리스천투데이』, 2017.7.2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2555> (2022.6.24. 검색).

_____, 「'살아 있는 책들' 만들어 온 '그리스도인들'의 출판사—40주년 맞은 흥성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크리스천투데이』, 2014.10.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75291> (2022.6.24. 검색).

김영태, 「엔도 슈사쿠, 소설 '침묵'의 의미를 말하다」, 『노컷뉴스』, 2016.1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896829?sid=103> (2022.6.24. 검색).

신상목, 「저자와의 만남-김승철 일본 난잔대 교수 '침묵'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 『국민일보』, 2017.9.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029254?sid=103> (2022.6.24. 검색).

「성바오로딸출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546&cid=46669&categoryId=46669> (2022.6.24. 검색).

「성바오로출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555&cid=46646&categoryId=46646> (2022.6.24. 검색).

「불행한 전집, 행복한 전집, 『한겨레 21』 725, 2008.8.27.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52000/2008/08/021152000200808270725002.html> (2022.6.24. 검색).

【Abstract】

Refraction in the Translation of Silence and Religious Ideology

Kim, Jin-Gy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specific aspects of religious ideology working in Endo Shusaku's *Silence* translation by religious publishers. *Silence* was accepted in Korea, with the translations of Hongsungsa, a Protestant publisher, and Paul Daughter, a Catholic publisher. Unlike the two publishers' editions, the JoongAngIlbo's Selection of Contemporary world literature 15 *Silence*, which faithfully translates the original including the last chapter, is forgotten, and the translations by the two religious publishers are continuously sold to this day. The translation of Paul daughter and Hongsungsa focused on the 'religion' rather than 'literature' and transformed the system and expression of the original work. Leaving out the last chapter of the original, and changing the table of contents, shows that the authority over literary works has not worked much for translators. In addition, the choice of vocabulary with readers of the same religious background in mind makes it difficult for ordinary readers to understand the book, and also deprives religious readers of the opportunity to think in connection with general common sense. However, a more important issue than this is the fact that the writer's inner conflict over the faith through his work change into a form familiar with the existing faith of Korean Protestantism in Hongsungsa's translation. Through active intervention in changing the words of the last paragraph of the original chapter 9, doubts and anguish about the central character's own life and religion are refracted into familiar narratives to Christians, the maturity of faith through trials. The translation, which omitted the last chapter of the original, ended with a firm confession of faith in the completed form, weakening the original's existential and religious conflict and making it easier for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achon Univ.

Korean Christians to accept the work.

Keywords: Endo Shusaku, *Silence*, Refraction, Patronage, Religious Ideology.

접수일: 2022.06.28.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17.